

코미디가 왔다, 배꼽 빠지게 웃어보자

KBS2 새 개그프로 '개승자' 신설 김준호·박준영 등 베테랑 총출동 서바이벌 도입...투표로 생존결정 '코빅' 위드코로나로 모객 기대감 10주년 특집 계기 제2도약 꿈꿔

'코미디 명가'가 다시 맞붙는다. 유일한 개그프로그램 tvN '코미디빅리그'(코빅)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변화를 모색 중인 가운데 KBS 2TV '개그콘서트'(개콘)의 주역들이 11월13일 새 무대 '개승자'로 맞선다. 각 제작진은 안방극장 대신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으로 시청자 시선이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 TV 코미디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개승자'... "기틀부터 다시" 21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해 6월 중영한 '개콘'을 계승하는 '개승자'는 방청객이 무대를 평가해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방식이다. '개콘'의 주역 김준호·김



방송가의 '코미디 양대산맥'이 다시 맞붙는다. 김용명·이은형(왼쪽 사진) 등이 활약 중인 tvN '코미디빅리그'는 최근 10주년을 맞아 플랫폼 다변화에 힘을 기울이고, KBS 2TV에서는 '개그콘서트'의 주축 김준호 등이 뭉친 '개승자'를 내놓는다. 사진제공 | tvN·KBS

대회·박준영·이수근이 '팀장' 역할을 맡는다. KBS 공채 개그맨들이 다시 돌아와 최근 첫 경연을 치렀다. 11월6일 두 번째 경연은 방청객 앞에서 선보인다. 25일 연출자 조준희 PD는 "1990년대 '개콘'이 '버라이어티'의 흥수 속에서 우뚝 선 것은 경쟁력 있는 개그맨들만이 무대에 오르게 한 경쟁 시스템 덕분"이라며 "탈락 제도를 통해 실험정신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개콘'의 후속프로그램이라는 부담감 속에서 시청자 눈에 낯익은 인물들로 기반을 닦는 데에도 집중한다. 조 PD는 "초반에는 선배 개그맨들이 프로그램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이후 신인들이 돋보이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라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개그맨들의 아이디어를 '날 것'으로 보기 위해 제작진 개입도 최소화한다.

●'코빅'... "위드 코로나로 변신 기대"

'코빅'은 지난해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청객을 모집하지 못하면서 꾸준히 기획해온 10주년 특집도 계속 미뤄왔지만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투 트랙' 전략도 펴고 있다. 최근 '오동나무엔터' 코너 등을 유튜브로만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김성원이 일본 가수 피코타로의 노래 'PPAP'에 비속어처럼 들리는 단어를 나열해 웃음을 자아낸다. 코로나19 여파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온라인 방청객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성재 책임프로듀서는 "방청객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자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책을 찾은 결과"라며 "플랫폼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개그맨들을 온라인으로 내보이자는 전략이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방청객과 함께 '소통형' 개그를 강화해 프로그램 본연의 매력을 되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해화, 동' 배우 유다인·민용근 감독 결혼



민용근 유다인

배우 유다인(37)이 민용근(45) 감독이 부부가 됐다. 25일 유다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결혼식을 잘 마쳤다. 결혼식에 와 주신 모든 분들과 기꺼이 참여해 주신 분들, 초대는 못했지만 축하해주신 분들까지 잊지 않겠다"고 글과 함께 남편 민 감독과 찍은 웨딩 화보도 공개했다. 2011년 2월 개봉한 영화 '해화, 동'을 통해 감독과 주연 배우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10년 간 연인으로 사랑을 이어오다 24일 친인척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유다인은 2005년 드라마 '건빵선생과 별사탕'으로 데뷔했고, 최근 영화 '아행'의 촬영을 마쳤다. 민 감독은 영화 '소울메이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엔하이픈 첫 정규 앨범 '빌보드 200' 11위



엔하이픈

'4세대 아이돌' 대표주자로 꼽히는 NCT 127과 엔하이픈이 각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엔하이픈의 첫 정규 앨범 '디멘션:달레마'는 빌보드가 25일(한국시간) 발표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발표된 앨범으로 한터차트 기준 첫 주 판매량 81만 장을 넘기며 자체 기록도 세웠다. NCT 127은 25일 발매한 정규 3집 리패키지 '페이보릿'의 선주문 수량 총 106만3806장을 기록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페이보릿'을 비롯해 '러브 온 더 플로어' '파일럿' 등 신곡 3곡을 추가해 모두 14곡을 수록했다.

배우 강예원 확진...매니저 등 스태프 음성



강예원

배우 강예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강예원이 21일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컨디션 난조로 인해 23일 재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그가 출연하는 JTBC 새 드라마 '한 사람만' 촬영일정과 확진 시기가 겹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예원의 매니저 등 스태프들은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예원은 12월 방송 예정인 '한 사람만'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백종원·소유진 부부 광고모델로 전액 기부



백종원

소유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소유진 부부가 세 자녀들과 함께 촬영한 통신사 광고의 모델로 전액을 기부한다. 25일 사랑의 열매 회복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백종원 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습 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광고 모델로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장학금 및 생계비 등으로 사용된다. 백종원 대표 부부는 각종 광고 수익금을 미혼모 가정의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왔다.

배우 김선호 소속사와 3년간 재계약 체결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가 계약기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5일 소속사는 "계약 내용은 당사자간 비밀이 원칙이나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 합의해 알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018년 7월 김선호와 접촉해 2019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맺고, 연장계약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배우의 요청으로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2023년까지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후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트와이스

정규 3집 '포몰러' 내달 발표 트와이스 글로벌 정복 재결심

첫 영어 싱글·일본 정규앨범 선보여 12월 말부터 오프라인 월드투어 추진

걸그룹 트와이스가 글로벌 정복에 나선다. 트와이스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정규 3집 '포몰러 오브 러브:O+T= \langle 3'(Formula of Love:O+T= \langle 3)을 전 세계 동시에 내놓고 케이팝 대표 걸그룹의 입지를 재확인할 기세다. 정규 앨범은 지난해 10월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 이후 1년 만이다.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아 첫 영어 싱글과 일본 첫 정규 앨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트와이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색다르게 변신한 멤버들의 모습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미 공개한 트레일러 영상에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인터뷰를 선보인 이들은 '사랑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는 변화를 담아 내 시선을 끌고 있다. 이처럼 독특한 콘셉트로 각오가 더욱 남다름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1일 발표된 첫 영어 디지털 싱글 '더 필즈'(The Feels)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12일자)에 83위로 진입했다. 또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5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과 '빌보드 글로벌 200'차트에서는 각각 10위와 12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광복 행보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일본에서 최고 인기인 이들은 12월 15일 현지에서 아홉 번째 싱글 '도넛'(Donut)을 발표한다. 일본에서 처음 시도하는 발라드곡으로, 연말 시즌을 겨냥해 포근한 겨울을 선물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

12월 말 오프라인 월드투어도 추진하고 있다. 12월24~26일 서울 방이동 케이스포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감염병 확산 사태 등 추위를 지켜보며 발을 넓힐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설현 배꼽도 예술이네 '개미허리!' 가수 겸 배우 설현이 탄탄한 복근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25일 설현은 한 패션 매거진과 함께 진행한 화보에서 몸매를 자랑하는 붉은색 크롭티 카디건에 데님 팬츠를 매치해 발랄한 매력을 뽐냈다. 상의와 맞춘 강렬한 레드드레스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로 사랑스러움까지 더했다. 그는 화보를 통해 "최근 다양한 취미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나 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사진제공 | 마리끌레르

51세 박희순·44세 허성태·48세 조한철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이네임' 박희순 중년 섹시미 풀풀 SNS 유튜브서 갈무리 영상 화제 반발 '오징어게임' 허성태 예능프로에 진출 조한철 '갯마을' 이어 '지리산' 캐스팅

'평균 연령 47.6세의 중년 사내들'이 뒀다.

박희순(51), 허성태(44), 조한철(48)이 화제자 속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 받고 있다. 베테랑으로 이미지 변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히 다양한 매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넷플릭스 '마이네임'의 마약조직 두목인 박희순은 '중년 섹시미'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다. 주연 한소희와 공존과 대립을 오가며 풍겨내는 섹시한 매력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20~30대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 팬덤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S



박희순

허성태

조한철

NS와 유튜브 등에서는 그의 출연 장면들 갈무리한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고, 2015년 박예진과 결혼 등 개인사도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1월4일 공개하는 애플TV+(플러스)의 'Dr. 브레인'으로 열기를 이어갈 태세다.

허성태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열풍으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만여명이었던 SNS 팔로어가

'오징어게임' 공개 이후 200만여명으로 확 늘었다. 특히 대기업 러시아 주재원 출신임이 공개돼 러시아 팬들도 SNS에 몰리기도 했다.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있다. 극중 험악한 건달 역과는 달리 섬세하고 온화한 성격의 '반전'으로 시청자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조한철은 17일 종영한 '갯마을 차차차'에 이어 신작 '지리산'으로 tvN 토일드라마에 연달아 출연 중이다. 그동안 주로 장난기 많고 푸근한 매력의 캐릭터를 소화해오다 '지리산'으로 책임감 강한 지리산 국립공원 레인저(관리인)로 등장하면서 "새롭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갯마을 차차차' 12.7%(닐슨코리아), '지리산' 10.7%로 '시청률 요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스스로 "tvN의 주말을 책임지는 남자"로 소개하면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